

일본어 번역투 종합 고찰 및 극복 방안 연구*

—2000년대 일한 번역작품을 대상으로—

오 경 순**

ksohlee@naver.com

〈 目 次 〉

- | | |
|----------------|---------------------|
| 1. 서론 | 4. 오역과 번역투 및 가독성 개념 |
| 2. 선행연구 | 5. 번역투 유형별 분석 및 고찰 |
|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1 어휘 유형 |
| 3.1 연구내용 | 5.2 문체 유형 |
| 3.2 연구방법 | 6. 결론 |

Key word : 일본어 번역투(Japanese Translationese), 가독성(Readability), 직역(Direct Translation), 오역(Mistranslation), 번역예시(Translation Example)

1. 서론

본 논문은 일한 번역문에 나타나는 일본어 번역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양상과 특징을 고찰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일한 번역문 속 일본어 번역투 문제 해결을 위한 극복 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양적인 연구보다는 질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2023년도 우리나라 출판 통계를 보면 전체 신간 발행 종수는 총 6만 2,865종이다. 이 중 전체 번역서 발행 도서는 총 1만 711종으로 번역서가 차지하는 출판 비중은 약 17%이다. 또한, 전체 번역서 발행 도서 총 1만 711종 중 일본어 번역서 발행 도서는 총 4,316종으로 전체 번역서 발행 도서 중 일본어 번역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036)

**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겸임교수, 일본어학·일한번역

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압도적 1위이다.¹⁾ 요컨대 2023년도에 일본어 번역서는 하루 평균 12권 정도가 출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1>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3년 번역도서 분야별 종수 현황> 출판 통계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발행된 주요 국가별 번역도서 비중을 알기 쉽게 정리한 표이다.

<표1> 2023년 번역도서 분야별 종수 현황 [국가 구분]

신간 발행 종수	62,865 (100%)	
번역도서 종수(비중)	10,711 (17%)	100%
국가별 번역도서		
일본	4,316	40.3%
미국	3,129	29.2%
영국	914	8.5%
프랑스	565	5.3%
독일	378	3.5%
중국	354	3.3%
기타	1,055	9.8%

이처럼 일본어 번역 도서량이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번역의 질은 그 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일한 번역의 품질을 논할 때 거론되는 주된 문제는 일한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역과 번역투 및 가독성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우리말에 남아있는 부자연스러운 외국어의 흔적을 번역학에서는 ‘번역투(翻譯套, Translationese)’라 부른다. 어떤 글이 원문(original text)이 아닌 번역문(translated text)이라는 흔적이 판에 박은 듯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글의 특징이 바로 번역투이다.

본 연구자는 번역투를 ‘원문 구조에 치우친 직역의 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식 표현’으로 정의하였다.(오경순, 2010)

1)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 자료 참조 <<http://www.kpa21.or.kr/>>

2023년 신간 발행 종수 및 번역도서 분야별 종수 현황(통계기간: 2023.1.1~12.31.)
(연구자 검색확인: 2024.5.18.)

번역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본래 우리말이 아니거나 우리말 언어체계에 적합하지 않거나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구사 탓에 가독성과 번역의 질이 낮아져 독자의 가독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번역투란 번역문 표현의 적합성, 즉 가독성과 관련된 번역문과 번역문 독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나 번역투는 오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번역투의 확산을 초래한다. 번역투는 한국어의 정상적인 발달과 다양한 표현 기회를 저해하고 한국어 어문구조를 왜곡, 훼손시킨다. 그러므로 번역투는 극복해야 할 오류이다.

2. 선행연구

일어일문학계의 일한 번역 관련 연구나 논문을 살펴보면 일본어 번역투와 관련된 연구나 한국어 속 일본어 번역투에 관한 연구 등은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초기 연구로는 ‘현대 한국어와 신문 기사 속 일본어투 표현 고찰’ 등을 주제로 일본어투를 다룬 정수현(2002), 이하자(2005) 등이 있다.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일한 번역의 ‘일본어 번역투’ 관련 연구는 본 연구자의 일련의 연구 결과물인 즐고(2007, 2008, 2010a, 2010b, 2011a, 2011b, 2013, 2014a, 2014b, 2014c, 2015, 2017a, 2017b, 2019, 2022)와 즐저(2008, 2010), 김한식(2012)과 나가노 구루미(2020) 정도가 있다. 더욱이 ‘일본어 번역투의 종합 고찰 및 극복 방안 연구’와 관련된 연구물 등은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나 연구 동향은 국내에서는 국어학전공 연구자들이 국어학 측면에서 고찰한 ‘외국어식 구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등의 연구와 번역학의 관점에서 번역투 이론을 다룬 연구 정도가 있다.

기존의 일부 국어학계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이론 중심의 연구로서 국어 순화 및 국어 문체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문제점을 제시한 성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일본어투 및 일본어 번역투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계의 번역투 담론은 주로 이론 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번역이나 우리말

글쓰기에서 지양해야 할 이질적 요소인 번역투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의 제반 문제를 고려할 때 번역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번역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어 번역투와 관련된 번역학 논문이나 번역 연구서, 번역 지침서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일 양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번역가의 번역을 통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면서 일본 문학 작품이 수용되어야 한국문학과 일본 문학이 상생하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1 연구내용

‘노견(路肩)’이란 일본에서 영어 ‘road shoulder’를 직역하여 쓴 말이다. 우리는 일본말 ‘노견(路肩)’을 들여와 쓰다가 다시 ‘길어깨’라는 희한한 우리말로 번역하여 쓰기도 했다. ‘간절기(間節氣)’란 ‘절기의 사이(節氣の間)’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을 오역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일본어 사전에는 ‘간절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또한, 흔히 쓰고 듣는 ‘재테크’ 역시 ‘재무 테크놀로지(財務 technology)’를 줄인 일본식 용어인 일본어투에 해당하는 말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일본어 번역 투’는 ‘노견(路肩)’, ‘단차(段差)’, ‘간절기(間節氣)’, ‘재테크(財テク)’처럼 우리말과 글 속에 굳어진 일본식 용어나 구문, 일본식 조어(造語) 등 ‘일본어투’까지 포괄하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고찰대상 작품 수는 2000년대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일한 번역 소설 세 작품과 일한 번역 수필 세 작품씩 총 여섯 작품이다. 작품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과 한국에서 출간 이후 화제가 되었고 현재까지 독자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는 작품으로 엄선하였다. 본 연구 고찰대상 작품 총수는 일본어 원작품과 한국어 번역작품 포함 아래 <표2>에 제시한 총 12작품이다.

<표2> 고찰대상 작품

구분	고찰대상 작품 목록 ²⁾
소설1	구로야나기 데쓰코(黒柳徹子) 『창가의 토토(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³⁾ (김난주, 2000)
소설2	오쿠다 히데오(奥田英朗) 『공중그네(空中ブランコ)』(이영미, 2005)
소설3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 ⁴⁾ (김석희, 2016)
수필1	강상중(姜尙中) 『고민하는 힘(悩む力)』(이경덕, 2009)
수필2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走ることにし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 ⁵⁾ (임홍빈, 2009)
수필3	이나가키 에미코(稲垣えみ子) ⁶⁾ 『퇴사하겠습니다(魂の退社)』(김미형, 2017)

3.2 연구방법

본 논문의 고찰 범위와 방법은 일본어 번역투 유형을 크게 (I) 어휘와 (II) 문체로 이분화하고 각각의 하위분류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I) 어휘의 하위분류로는 ① 음역(音譯) 일본어 ② 일본식 외래어 ③ 일본식 조어(造語) ④ 중첩(重疊)조사 ⑤ 일본식 후치사로 한정한다. (II) 문체의 하위분류로는 ① ‘~고 있다’ 구문 ② 피동 구문 ③ 사동 구문 ④ 이중부정 구문 ⑤ 관용표현 및 속담으로 한정한다.

- 2) 작품 목록 기술 설명: 한글 작가명(일본어명) 『번역서 제목(원저 제목)』(역자, 출판연도) 순임.
- 3) 일본에서 누계 발행 부수 800만 부를 돌파한 일본 ‘전후 최대의 베스트셀러’ 세계 35개국에서 번역 출판됨. 중국어 번역본은 2017년 누계 발행 부수만 1,000만 부 돌파.
- 4) 2016년 문예춘추(文藝春秋)에서 간행된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은 제15회(2016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상 수상 작품임.
- 5) 세계 3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됨.
작가=러너로서 살아가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
- 6) 일본의 저널리스트 아사히 신문사 전직 기자. 50세에 아사히 신문을 퇴직하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활동. 트레이드 마크인 아프로 머리(アフロヘア) 스타일로 유명.

또한, 구체적인 일본어 번역투 극복 방안으로 번역투를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가독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의 대안으로 번역예시를 제시한다.

4. 오역과 번역투 및 가독성 개념

번역투란 우리말 표현의 적합성, 즉 가독성(readability)과 관련된 번역문과 번역문 독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엄밀하게 말해 번역투는 오역이 아니다. 번역투는 번역자가 원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우리말 구사 능력이 미흡하거나 혹은 번역투 문제 인식 부족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번역을 위해서는 우리말 구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번역자는 번역투 문제의 중요성을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고 번역투를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오역(mistranslation)이란 원문의 언어 내·외적⁷⁾인 이해, 지식 부족으로 원문의 정확한 의미 전달에 실패한 번역”(Reiss, 1971: 54~88)을 말한다.

번역투가 번역문과 번역문 독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독자 중심 개념이라면 오역은 번역의 정확성, 어감 전달의 적절성에 관련된 원문과 번역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아래 예(1), (2)는 원문 파악 부정확에 따른 오역 예이다.

- (1) その日は診察室に入るなり、羽交い締めにされた。「捕まーえた」と、まるで鬼ごっこでもしているのかのように。そして目の前では、注射器を手にしたマユミという看護婦が、任王立ちしている。恥骨の近辺がひんやりした。 『空中ブランコ, p.81』
그날은 진찰실에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포박당했다. 이라부가 문 뒤에 숨어

7) 라이스(Reiss, 1971: 54~88)가 제시한 언어 내적·외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언어 내적 기준(intralinguistic criteria) : 의미론적(semantic), 어휘론적(lexical), 문법적(grammatical), 문체론적(stylistic) 특성.
- ② 언어 외적 기준(extralinguistic criteria) : 상황(situation), 주제분야(subject field), 시간(time), 공간(space), 수신자(receiver), 발신자(sender), 정서적 함의(affective implications).

있다가 덮친 것이다. “잡았~다!” 마치 **귀신잡기 놀이**라도 하듯. 그리고 눈앞에는 주사기를 든 마유미라는 간호사가 금강신처럼 턱 버티고 있었다. 불두덩뻐 언저리가 서늘해졌다. 『공중그네, p.26』

⇨⁸⁾ “잡았~다!”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예(1)에서 「鬼ごっこ」는 술래잡기 놀이이다. 이를 ‘귀신잡기’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또한 「鬼ごっこ」에 이미 ‘놀이’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술래잡기’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2) その日は複数の演目にエンターした。オープニングの地上十メートルでの**逆さ大車輪**に始まり、バイクの曲乗り、エリと組んでの肩芸、普段は後輩に任せるようなものまでやった。 『空中ブランコ, p.50』

그날은 여러 연기에 겹치기 출연했다. 지상 10미터 높이에서 **거꾸로 자전거 타기**를 선보인 오프닝 쇼를 시작으로 오토바이 곡예, 에리와 팀을 짝 상대 묘기, 평소 같으면 후배들에게 맡기는 것까지 도맡아서 했다.

『공중그네, p.113』

⇨ ~지상 10미터 높이에서 **역회전 생사륜**을 선보인~

예(2)의 「大車輪(だいしゃりん)」은 서커스에서 두 사람 이상이 관람차 같은 첩바퀴 안에 들어가 균형을 맞추며 도는 곡예를 말한다. 또한 「逆さ大車輪」은 「大車輪」 곡예를 하다가 중간에 역방향으로 도는 곡예이다. 자전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용어이다. 한국 서커스단에서는 이러한 곡예를 ‘생사륜(生死輪)’이라 한다. 따라서 예(2)의 「逆さ大車輪」의 우리말 번역은 ‘거꾸로 자전거 타기’가 아닌 ‘역회전 생사륜’이다.

“가독성(readability)이란 독자가 원문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하느냐를 판단하는 용어이다.”⁹⁾ 다시 말해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자의 이해

8) 이 논문에서 기호 ‘⇨’는 연구자의 번역예시를 뜻한다.

우리말 어법에 맞는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우리말 번역을 찾아가기 위해 제시한 연구자의 번역예시는 하나의 번역 방안으로써, 이것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모범 답안이라는 뜻은 아니다. 바람직한 번역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다.

9)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본 범주인 충실성과 가독성 개념은 영미문화연구회 번역평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번역투와 가독성이 관련 있는 것은 번역투 표현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아 낯설고 어색하며 어려워져 가독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준 높은 학술서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말 어법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아래 예(3)과 (4)는 번역투 표현 예이다.

- (3) 「うんうん、誰でもいいから相手見つけたら？ 女はいいよな、その点。男だったら やばかったよ」『誰か紹介してあげたらー？ 洋司さん、顔広いじゃない』サツキの言葉に、シホたちが、「そうそう！」「誰かいないの、ちょっといい人？」と盛り上がった。 『コンビニ人間, p.82』

“그래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상대를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 점에서 여자는 좋아요 남자라면 불안해요” “누군가를 소개해주면 어때요? 기요시 씨, 얼굴 넓잖아요” 사쓰키의 말에 시호와 몇몇 친구들이 “그래요!” “누구 없나, 딱 알맞은 사람?”하고 떠들어댔다. 『편의점 인간, p.96』

⇨ ~ 기요시 씨, 발이 넓잖아요”

예(3)에서 「顔が広い」는 ‘안면이 넓다, 잘 알려지다, 발이 넓다’를 뜻한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얼굴이 넓다’에는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란 뜻도 있긴 하다. 그러나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으로 ‘얼굴이 넓다’라고 한다면 일본어 관용표현 「顔が広い」를 직역한 번역투 표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제의 범위’를 말할 때 한국인은 ‘발’을 떠올리지만, 일본인들은 ‘얼굴’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 (4) 「あなたは本当に真面目なんですか」と先生が念を押した。「私は過去の因果で、人を疑りつけている。だから実はあなたも疑っている。しかしどうもあなただけは疑りたくない。あなたは疑るにはあまりに単純すぎるようだ。私は死ぬ前にたった一人で好いから、他を信用して死にたいと

思っている。あなたはそのたった一人になれますか。なつてくれますか。 **あなたははらの底から真面目ですか** 『悩む力, p.42』

“당신은 진지합니까?” 선생이 다짐하듯 물었다. ‘나는 과거의 인과 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만 당신만은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의심하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믿으며 죽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뱃속까지 진지합니까?**”

『고민하는 힘, pp.42-43』

⇨ **당신은 뱃속까지 진지합니까?**

예(4)에서 『腹の底』는 문맥에 따라 ‘뱃속, 속생각, 혹은 마음껏, 실컷’ 등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위 문장에서 『はらの底』를 일본어 글자 그대로 직역하여 ‘뱃속’으로 번역한 것은 번역투 표현이다. ‘뱃속까지 진지합니까?’는 우리말로 어색한 표현이다. 이런 경우 ‘뱃속까지 진지합니까?’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다.

5. 분석 및 고찰

5.1 어휘 유형

5.1.1 음역(音譯) 일본어

- (5) 『極道が神経科か? 恰好つかねえだろう』
 『適当な理由つけばいいじゃない。昔刺された古傷が痛むとか』
 『刺されたことなんてねえよ』
 『ハッターリが大事なんでしょ、そっちの世界は』 『空中ブランコ, p.68』
 “조폭이 신경과라? 체면이 말이 아니군.”
 “적당한 이유를 대면 될 거 아냐. 옛날에 찔린 상처가 아프다거나 뭐 그런거.”
 “찔리긴 누가 찔려.”
 “**후카시**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냐. 그쪽 세계에서는.” 『공중그네, p.12』

⇨ “허세 부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쪽 세계에서는.”

일본어 『ハッター』에는 넉덕스러운 말로 실지보다 지나치게 떠벌리는 것이나 태도 혹은 허세, 과장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또는 때리거나 위협하여 금품을 강탈하는 등의 다양한 뜻이 있다. 위 예(5)에서처럼 ‘후까시’는 ‘노가다(土方, どかた), 나가리(流れ, ながれ), 지라시(散らし, ちらし), 가오(顔, かお), 시다바리(下張り, したばり)’ 등 일본어 발음 그대로 표기한 음역(音譯) 일본어에 해당하는 번역투 표현이다.

따라서 ‘후까시’는 ‘허풍’, ‘허세’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

5.1.2 일본식 외래어

- (6) 準備は万端、なはずだった。口ではうまいことを言う一方で、実はなかなか現実主義者で戦略家でもある私は、その来るべき**エックスデー**に向けて実に周到に長い時間をかけて外堀も内堀も埋めてきたつもりであった。しかし、実際に会社を辞めてみて私の身の回りに起きたことは、まあ何ということでしょう、想像もしなかった打撃の連続だったのです。 『魂の退社, p.18』

나름, 만반의 준비를 다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위세 좋게 떠들어도 사실은 상당한 현실주의자에 전략가인 나는 그 **다가올 날**을 위해 그야말로 주도면밀하게,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대책의 탑을 쌓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보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랄까, 상상도 못 했던 타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pp.20-21』

⇨ ~ 나는 그 **D데이(D-DAY)**를 위해 그야말로 주도면밀하게, ~

예(6)의 『エックスデー』는 『Xデー』라고도 표기하며 뭔가 중요한 일이 행해질 예정일, 작전 결행일, (위성·우주선 등의) 발사일을 뜻하는 ‘일본식 외래어(和製英語)’이다. 위와 같은 의미로 영어권에서는 『X-Day』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영어를 조합해(X+day) 일본에서 만든 ‘일본식 영어’를 본 논문에서는 ‘일본식 외래어(和製英語)’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エックスデー』는 독자에게 친숙한 용어인 ‘D데이(D-DAY)’, ‘퇴사일’, ‘결전의 날’, 혹은 위

번역에서처럼 ‘다가올 날’ 등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일본식 외래어’이다.

5.1.3 일본식 조어(造語) 접미사 ‘~적(的)’

“~적(的)’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손재현, 2001) 다양한 뜻의 파생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적(的)’의 풍부한 조어력(造語力)과 사용의 편리성(便利性) 때문일 것이다. 우리말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적(的)’을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니 무조건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적(的)’은 오래전부터 우리말과 글의 일부분이 됐고, 효용 가치도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적(的)’의 무분별한 남용이다.¹⁰⁾ 우리말과 글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적(的)’을 없앤 표현이 간결하고 뜻도 분명하여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아래 예(7)과 (8)은 일본어 원문에 ‘~的’이 없는 데도 ‘~적(的)’으로 번역한 경우이다.

- (7) 『時代が変わったの。それくらいわかるだろう。設備とか福利厚生とか、うちがいちばん遅れてたんだぜ。組織改革をして大手に追いつかないきゃ。それに、今後は外タレとの契約だって増えて、そうなりゃあ国際化も必要だし。要するに、昔気質には限界があるわけよ』 『昔気質、ね』
自嘲気味に言った。 『空中ブランコ, p.28』

“시대가 변했어. 그 정도는 알 거 아냐. 설비나 후생복지도 우리가 가장 뒤떨어졌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메이저를 따라가야 해. 게다가 앞으로는 외부인력 계약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 사람도 받아야 할 테지. 다시 말해서 고지식한 사고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고지식한 사고라.” **자조적인 어투로 말했다.** 『공중그네, p.89』

⇒ **자조 섞인 어투로 말했다.**

- (8) もしかするとこれからの人生は、人事異動が発表されるたびに心がざわ

10) ‘~적(的)’의 남용은 한·일 양국에서 줄곧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藤居信雄(1957), 広田栄太郎(1969), 山田巖(1961), 김용석(1989), 砂川有里子(2004), 오경순(2010)

つき、悩みツラミのおぼけにならぬよう**必死**で自分をコントロールし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人生を過ごさねばならぬのだろうか……。

『魂の退社, p.33』

앞으로 나는 인사이동이 발표될 때마다 마음이 헝클어지고 열 받고 한 품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나 자신을 제어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 까……

『퇴사하겠습니다, p.34』

⇨ 죽을힘을 다해서 / 온 힘을 다해서

아래 예(9)는 원문에는 ‘~的’이 있으나 번역문에는 ‘~적’이 들어간 표현이 아닌 다양한 우리말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번역 예이다. 이처럼 번역자가 ‘~적(的)’의 번역투 표현을 사전에 염두에 둔다면 일한 번역문에서 구태여 ‘~적’을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뜻도 분명하지 않고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에게도 친절하지 않은 접미사 ‘~적(的)’은 가능한 한 줄여 쓸 필요가 있으며 일한 번역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9) 『おかしいなあ、**イメージ的には**回転してるんだけどなあ

『空中ブランコ, p.45』

“이상하네. **내 생각엔** 회전을 한 것 같은데.”

『공중그네, p.108』

5.1.4 중첩(重疊)조사¹¹⁾

일본어투 조사의 특징으로 격조사 다음에 ‘の’가 붙는 중첩 조사가 있다. 일본어 중첩 조사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과의·~와의·~하고 의(~との), 까지의(~までの), ~에로의(~への), ~로부터의(~からの), ~들의(~などの), ~로서의(~としての), ~로써의(~をもつての), ~마다의(~ごとの), ~만의(~だけの), ~만큼의(~ほどの), ~(에)서의(~での), ~에 있어서의(~においての)’ 등이 있다.

이러한 중첩 조사는 우리말에 깊숙이 침투된 대표적인 일본어투로 지적된

11) 김광해(1995: 13)가 ‘조사의 중첩 사용’이란 표현을 썼다.

다. 아래 예처럼 일본어에서는 중첩 조사 표현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우나 중첩 조사를 직역한 우리말 표현은 부자연스럽다.

- (10) 友達との約束 (친구**와의** 약속) ⇨ 친구**와 한** 약속
 (11) 父からの手紙 (아버지**로부터의** 편지) ⇨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12) 京都までの運賃 (교토**까지의** 운임) ⇨ 교토**까지 가는(드는)** 운임

- (13) その事実を前に、依存に慣れきった大勢の人たちが口をぼかんと開けて
 いる。

さてどうするか。今必要なのは、明らかに**依存からの脱却**だ。

『魂の退社, p.172』

그 현실 앞에서, 의존에 찌든 많은 사람들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 **의존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퇴사하겠습니다, p.166』

⇨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 **의존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 (14) 人によっては、**他者とのかわり**は表面的にしのぎ、本当の自分は隠して
 おく」といった方法が取れるかもしれません。 『悩む力, p.36』

사람에 따라서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겉으로는 참고 견디고 진짜 자기는 감추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힘, p.103-104』

⇨ 사람에 따라서는 **타자와 맺은 관계 / 인간관계에서**

‘~와의’, ‘~로부터(의)’, ‘~까지의’, ‘~에로의’, ‘~으로서의’, ‘~에서의’ 등의 표현이 비문법적인 것은 아니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장의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위 예(10)-(14)에 제시한 번역예시처럼 일한 번역에서 중첩조사의 경우 관형격조사 ‘の’의 우리말 번역인 ‘의’를 아예 없애거나 다른 말로 바꿔주면 뜻도 분명해지고 이해하기도 쉽다.

5.1.5 일본식 후치사

“일본식 후치사란 격조사 ‘に’에 일반 동사의 연용형(連用形)이나 ‘~て형’

혹은 동사의 연체형(連体形)이 어울려 문법화·특수화한 형태이다. 후치사는 일본어에서 매우 폭넓게 나타나며, 국어에도 유입되어 동일한 형태·의미·기능으로 쓰이고 있다.”(김문오·홍사만, 2003: 330)

일본식 후치사에는 ‘~에 대해서(~に対して, ~について)’, ‘~에 관해서(~に関して, ~について)’, ‘~에 있어서(~において, ~における)’, ‘~에 의하여(~によつて, ~に依つて, ~に因つて)’, ‘~에 응하여/따라서(~に応じて)’, ‘~에게 있어서(~にとつて)’ 등이 있다.

- (15) **トットちゃんの話によると**、よその家の庭をつきつて垣根をもぐったり、原っぱいの鉄条網の間をくぐるとき、「こんなになっちゃうんだ」ということはのだけれど、とにかく、そんな具合で、結局、今朝、家を出るとき、ママの手製の、しゃれたのは、どれもビリビリで、仕方なく、前に買ったのを着てきたのだった。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p.32』
- 토토의 말에 의하면** 다른 집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 밑을 기어 들어가거나, 공터에 있는 철조망 사이를 빠져나갈 때 ‘그렇게 돼 버린다’는데…。 어쨌든 그런 사정으로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엄마가 만든 멋진 옷은 하나같이 너털너털해서 입을 수가 없었다. 『창가의 토토, p.28』

⇨ 토토가 **말하길** / 토토의 **말로는** / 토토의 **말을 따르면**

예(15)에서 「~によると」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긴 표현이 ‘~에 의하면’인데, 이는 한자어 ‘의(依)’에 ‘하다’를 붙인 말이다. 여기서 ‘의하면’을 ‘따르면’으로 바꾸어 쓴 말이 ‘~에 따르면’인데 본디 ‘따르다’는 타동사로서 ‘~을(를) 따르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따라서 「~に依つて」, 「~に依り」는 ‘~을 따르면’, ‘~따라’, ‘~로(써)’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교육부도 일본어 번역 투 표현인 ‘~로 인(因)하여’는 문장에서 아예 빼거나 조사로 수정해도 뜻을 전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¹²⁾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8/2016100800173.html

예를 들어 ‘홍수 등으로 인하여 물길이 바뀔 때’(과학 3-1, 142쪽)라는 문장은 ‘홍수 등으로 물길이 바뀔 때’로 고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의 경우’ ‘~로 인한’이라는 표현도 바로잡는다. ‘부족할 경우에’→‘부족할 때’ ‘태풍으로 인한 피해’→‘태풍의 피해’로 고쳐 쓰겠다는 것이다.

- (16) 国による「懲罰」まであった！ 『魂の退社, p.134』
 국가에 의한 ‘징벌’까지 있을 줄이언 『퇴사하겠습니다, p.130』

⇨ 국가가 행하는 / 국가가 내리는 / 국가가 (벌)하는

- (17) 資本主義の変容と、「マネー(金)」の問題についても注目すべきものがあります。そこから敷衍して、人が「働く」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といったことについても、目を見開かされるものがあります。 『悩む力, p.22』
 자본주의의 변용과 ‘돈’의 문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발을 뺀어서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고민하는 힘 p.25』

⇨ 자본주의의 변용과 ‘돈’의 문제에 주목할 만한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에 대하여’는 일본식 후치사 「~に対して」를 직역한 번역투 표현이다. 교육부는 일본어 투 ‘~에 대하여’를 교과서에서 아예 없앤다고까지 했다.¹³⁾

일본어 「~に対して」, 「~について」를 원문 그대로 직역한 ‘~에 대해서(~대하여)’는 위 예(16)처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예(17)처럼 아예 없애도 된다. 따라서 목적어, 주어 등 다른 말로 바꾸어주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17)에서 「敷衍して」를 ‘발을 뺀어서’로 오역하였는데, ‘덧붙여서’, ‘부연해서’가 올바른 번역이다.

5.2 문체 유형

5.2.1 ‘~고 있다’ 구문

일본어 동사는 기본형만으로는 현재형을 나타낼 수가 없어 「동사+~ている」 형태가 발달했고, ある, いる, わかる, できる(可能形), 要る 등의 일부 상태 동사를 제외한 일본어 모든 동사의 「동사+~ている」형은 현재형을 나타낸다.

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8/2016100800173.html

[일본어 투 ‘~에 대하여’ 교과서에서 없앤다]

일한 번역에서 「동사+~ている」구문을 번역할 때 영어 진행형 ‘be+ing’ 구문과 일본어의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 결과의 계속을 나타내는 「동사+~ている」구문에 치우쳐서 ‘~고 있다’로 번역하면 우리말 어법에도 어긋나는 직역의 번역투 표현이 된다.

아래 예(18)과 예(19)는 일본어 원문의 「동사+~ていた」표현을 ‘-(하)고 있었다’로 번역한 예이다. 단순 과거형 ‘~었다(~였다)’로 번역해도 의미 전달에 차이도 없으며 오히려 간결하고 이해가 쉽다.

- (18) 仕事とは何なのか。会社とは何なのか。中年期にさしかかった私は、そんな、どうやっても先行きの見えない暗がりに迷い込みかけていた。

『魂の退社, p.82』

일이란 무엇인가. 회사란 무엇인가. 중년기에 접어든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p.81』

⇨ ~ 암담한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 (19) ところが私がデスクとして高松に戻ってみると、様相は一変していました。総局員は夜10時近くまで全員が会社に張り付き、その日に出した原稿のチェックや確認に追われています。

『魂の退社, p.85』

그런데 데스크가 되어 다카마쓰로 돌아와보니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총국원들은 밤 열시까지 전원이 회사에 들러붙어 그날 낸 원고를 체크하거나 확인 작업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p.84』

⇨ ~ 원고를 체크하거나 확인 작업에 **쫓깁니다**.

5.2.2 피동 구문

능동표현과 피동표현이 모두 가능한 경우 우리말은 능동표현을 선호하는 언어구조이지만 일본어는 피동표현을 선호하는 언어구조이다. 한·일 언어구조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어는 피동문이 비교적 덜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피동문이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표면화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적다. 따라서 한국어는 주어가 능동

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문장 외에는 되도록 피동표현을 쓰지 않아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일본어는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피행위자 중심의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자동사 피동 구문, 유사 피동 구문¹⁴⁾까지 발달한 언어이다.

다음 예(20)은 원문의 피동형을 피동형 그대로 번역한 것을 행위의 주체인 사람을 주어로 능동형으로 다시 고쳐 쓴 예이다.

(20) 小鳥は、「立ち入り禁止」と書かれた柵の中に穴を掘って埋められ、誰かがゴミ箱から拾ってきたアイスの棒が土の上に刺されて、花の死体が大量に供えられた。

「ほら、ね、恵子、悲しいね、かわいそうだね」と母は何度私に言い聞かせるように囁いたが、私は少しもそうは思わなかった。『コンビニ人間, p.14』
작은 새는 ‘출입금지’라고 **적힌** 나무 울타리 안쪽에다 판 구멍이에 **묻혔다**.
 누군가가 쓰레기통에서 주워 온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흙 위에 **꽂히고**,
꽃 시체가 듬뿍 바쳐졌다.

“자, 게이코 어머니? 슬프고 불쌍하지.” 어머니는 몇 번이나 나에게 들리도록 속삭였지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편의점 인간, p.13』

⇨ **작은 새를** ‘출입금지’라고 **적은** 나무 울타리 안쪽에다 판 구멍이에 **묻혔다**.
 누군가가 쓰레기통에서 주워 온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흙 위에 **꽂고**,
꽃 시체를 듬뿍 바쳤다. / **듬뿍 뿌렸다**.

다음 예(21)은 원문은 능동표현인데 우리말은 피동표현으로 번역된 예이다.

(21) 「ところで、医者には相談したの？」

「うん、眠れる薬はもらったけど」

「いや、その……」丹羽がなにやら 言いにくそうにしている.

「カウンセリングとかは受けなかったわけ？」 『空中ブランコ, p.28』

“그건 그렇고, 의사한테 상담은 받았나?”

“네, 잠 잘 자는 약은 지어 왔는데요.”

“아니, 그게…….” 니바는 뭔가 말을 **꺼리는 듯 보였다**.

14) 안중환(2001)의 용어이다.

“카운슬링 같은 건 받아본 거야?”

『공중그네, p.90』

⇨ 니바는 뭔가 말을 꺼리는 듯싶었다 / ~ 꺼리는 듯했다.

아래 예(22)는 일본어 원문은 피동표현이지만 한국어 번역문은 능동표현으로 번역함으로써 우리말 어법에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 좋은 예이다.

(22) むっとした。やくざは、なめた真似をされるのがいちばん頭にくる。

『空中ブランコ, p.77』

발끈했다. 야쿠자는 상대가 알보듯이 행동하는 걸 가장 못 참는다.

『공중그네, p.22』

5.2.3 사동 구문

일본어 사동표현에는 우리말처럼 남에게 ‘~하게 하다’, ‘~시키다’와 같은 강요의 뜻 외에도 허용이나 방임, 유발 등 다양한 뜻이 있다. 일본어는 능동표현과 사동표현이 모두 가능할 때 능동표현보다는 사동표현을 선호하는 것도 일본어 특징이며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아래 예(23)은 우리말 ‘~하다’로도 뜻이 통하는 일본어 사동 구문을 일본어 원문 그대로 ‘~시키다’로 번역한 예이다. 성공하는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같으므로 ‘성공시키다’가 아닌 ‘성공하다’가 우리말에 올바른 표현이다.

(23) 客席からは、今日いちばんの大きな拍手が鳴り響いた。あとはリターンだ。

この男、もしかすると成功させるんじゃないのか? 公平はすっかり興奮していた。

『空中ブランコ, p.56』

객석에서는 그날 공연 중, 가장 큰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젠 리턴이다. 저 사람, 혹시 성공시키는 거 아냐? 고헤이는 잔뜩 흥분해 있었다.

『공중그네, p.125』

⇨ 저 사람, 혹시 성공하는 거 아냐? 고헤이는 잔뜩 흥분해 있었다.

아래 예(24)는 일본어 원문은 사동표현이나 한국어 번역문은 능동표현으로 번역한 예이다. 그러나 원문의 「表情を曇らせる」는 ‘우울한(걱정스러운/ 어두

운) 표정을 짓다'이므로 '표정을 지었다'보다는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가 원문의 의미를 살린 번역이다.

- (24) 赤ん坊の頃はオンメを替えてもらったこともある丹羽はそう言った。同じく団員で妻のエリも同席し、「少し休んだ方がいいんじゃない」と表情を曇らせていた。 『空中ブランコ, p.13』
 갓난아기 때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했던 니바가 그렇게 말했다. 동료이자 아내인 에리도 동석했는데 ‘조금 쉬는 게 어때?’하는 표정을 지었다. 『공중그네, p.73』

⇨ ~ 우울한 (어두운 /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 예(24)처럼 일본어는 ‘인체(人體)의 움직임, 모습,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동표현을 쓴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는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나 일본어는 사동표현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일본어 ‘인체 사동표현’¹⁵⁾ 역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이자 일본어 언어구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예시처럼 일본어 ‘인체 사동표현’의 한국어 번역은 능동표현으로 대응한다.

- 頬を膨らます ⇨ 뺨부푹해지다
 胸を躍らせる ⇨ 가슴이 두근거리다
 頬を紅潮させ、目を輝かせ、⇨ 볼이 빨갭게 물들고, 눈이 빛나고
 手首をくねらせる ⇨ 손목을 돌리다
 目をしょぼしょぼさせる ⇨ 눈을 습벅거리다(꺼벅거리다)

5.2.4 이중부정 구문

일본어의 이중부정 구문은 강조의 느낌은 있으나 결국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일본어에는 우리말처럼 긍정을 강조할 표현 수단이 딱히 없어 이중

15) 오경순의 용어이다. ‘인체(人體)의 움직임, 모습, 상황’을 나타낼 때 사동표현을 구사하는 일본어 사동표현의 특징에 착안해 만든 용어이다.
 (예): 足を滑らせる(발을 헛디디다), 胸を膨らます(가슴이 부풀다), 目を疑わせる(눈을 의심하다), 表情を曇らせていた(어두운 표정을 짓다) 등.

부정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그는 지금쯤 바로 저 신칸센에 타고 있어야 했다.’를 일본어로 옮기면 『彼は今ごろちょうどあの新幹線に乗っていない
 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가 일본어다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러나 아래
 예(25)와 예(26)처럼 일본어의 이중부정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여 ‘~하지 않
 면 안 된다’식으로 번역하면 우리말 문장도 늘어지고 어색하여 부자연스러운
 번역투 표현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중부정으로 말 뜻을 강조하거나 강하게 단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말 번역은 이중부정 표현을 삼가는 게 좋다.

- (25) いちいちテニスコートまで出かけなくてはならないし、相手も必要だ。
 水泳なら一人でできるが、泳ぐためには適当なプールを見つけなくては
 ならない。 『走ることについ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 p.53』
 일일이 테니스코트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상대도 필요하다. 수영이라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풀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p.61』

⇒ ~ 테니스코트까지 가야 하고 ~적당한 풀을 찾아야 한다.

- (26) これは……よくよく考えれば地獄への道です！根本的に考え方を変えな
 ければダメだと思いました。 『魂の退社, p.41』
 이걸 곰곰 생각해보니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이었습시다! 근본적으로 사고방
 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p.42』

⇒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겠다 싶었습니다.

5.2.5 관용표현 및 속담

일본어 『肩で風を切って歩く』란 ‘어깨를 활짝 펴고 으스대며 걷다’ 혹은
 ‘의기양양 으스대며 걷다’, ‘어젯바람을 일으키며 걷다’ 등 힘과 권력을 과시
 하는 쾌감을 드러내는 일본어 관용표현이다. 아래 예(27)에서 『肩で風を切っ
 て歩く』의 번역인 ‘어깨로 바람을 가르며 걷다’는 원문인 일본어가 그대로
 흰히 들여다보이는 듯한 직역투 표현인 번역투라 할 수 있다.

(27) 喧嘩も嫌いではなかった。中学高校といわゆる番長格で、肩で風を切っ
て歩く快感を知っていた。人から畏れられ、頼りにされる。やくざは天
職に思えた。 『空中ブランコ, p.69』

싸움도 싫지는 않았다. 중고등학교 내내 불량 씨클 우두머리 격이었기 때문
에 어깨로 바람을 가르며 걷는 쾌감을 이미 충분히 맛본 터였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를 기동으로 의지한다. 야쿠자가 천직이라고 믿었다.

『공중그네, p.13』

⇨ **의기양양 으스대며 걷는** 쾌감을 이미 충분히 맛본 터였다.

아래 예(28)과 예(29)는 일본 문화, 야쿠자 집단의 은어 표현 이해 부족으로
드러난 직역의 번역투가 오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번역자는 「おしぼり」「鉢植え」「米櫃」를 글자 그대로 직역하여 ‘물수건’,
‘화분’, ‘쌀독’으로 번역하였는데, 일본어 「おしぼり」「鉢植え」「米櫃」 모두
야쿠자들이 구사하는 은어이다. 「おしぼり」「鉢植え」는 야쿠자에게 내는 상
납금이나 보호세, 자릿세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며, 「米櫃」는 ‘나와바
리’, 즉 ‘영역’, ‘구역’을 뜻하는 말이다. 아래 예(29)에서 「みかじめ料」를 이미
‘상납금’이라 번역한 부분이 있으므로 「おしぼりだの鉢植えだの」는 ‘보호세’
나 ‘자릿세’ 정도로 번역하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28) 「平気だって。セイちゃんの名前は出さないし、おしぼりや鉢植えぐらい
なら付き合ってもいいし。」 『空中ブランコ, p.89』

“괜찮다니까. 세이짱 이름은 들추지도 않을 거고, 물수건이나 화분 정도는
거래해도 되고” 『공중그네, p.35』

⇨ “괜찮다니까. 세이짱 이름은 들추지도 않을 거고, 보호세(자릿세) 정도는
내도 되고”

(29) 「べつに、そちらさんの米櫃に手を突っ込むうなんて気はありませんよ。
契約人は、みかじめ料はともかく、おしぼりだの鉢植えだのには付き
合ってもいいって言ってる。それにわたしはノータッチですよ」

『空中ブランコ, p.101』

“그쪽 쌀독에 손 넣을 생각은 추후도 없다. 계약 당사자는 상납금은 물론이고

물수건이나 **화분 같은 건** 거래하겠다고 한다. 그런 건 난 노터치니까.”
『공중그네, p.49』

⇨ “그쪽 **영역을 침범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계약 당사자는 **상납금**은 물론이고 **보호세(자릿세)** 정도는 내겠다고 한다. 그런 건 난 노터치니까.”

「**身を乗り出す**」는 ‘(흥미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귀가 솔깃해서 듣다’, ‘동조하다’ 등의 뜻이다. 아래 예(30)에서처럼 「**身を乗り出す**」를 원문 그대로 직역한 ‘몸을 앞으로 내밀다’ 번역 역시 번역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30) 今度、もっと大人数であつまろうか。せっかくユカリも地元に戻ってきただし、シホとかにも声かけてさー
「うんうん、いいね、やろうよー」ミホの提案に皆が身を乗り出す。
ミホの提案に皆が**身を乗り出す**。
「それぞれの旦那と子供も連れてさー、バーベキューやろうよ、また」
「わあ、やりたい！友達の子供同士が仲良くなるのっていいよね」
「ああ、いいよねえ、そういうの。」 『コンビニ人間, p.34』
“다음에는 더 많이 모일까? 모처럼 유카리도 고향으로 돌아왔고 시호한테도 말해서…….”
“그래그래, 좋아. 그러자!”
미호의 제안에 모두 **몸을 앞으로 내민다**.
“각자 남편과 아이도 데려와서 또 바비큐 파티를 하자.”
“와야, 하고 싶다! 친구 아이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좋아.”
“아아, 그런 거 좋아.” 『편의점 인간, p.35』

⇨ ~ 미호의 제안에 모두 **동조했다**. / **관심을 보였다**. / **귀가 솔깃했다**.

일본어 속담인 「泣いた鳥かもう笑う」란 ‘지금까지 울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불편한 심기나 표정을 감추고 다시 웃는 것’을 뜻한다. 일본어로 직역하면 ‘울던 까마귀가 벌써 웃는다.’로 흔히 어린아이와 같이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 말이 있다. 아래 예문(31)에서 번역자는 독자에게 친근한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을 구사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 (31) とうとうパパもママも折れてしまった。さっき泣いたからすがもう笑った、 というくらい、うれしそうな顔のトットちゃんの手の中の小さい箱 には、二羽のヒヨコが入っていた。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p.142』
 마침내 아빠도 엄마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잠시 후,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진 토토의 손에는, 어느새 두 마리 병아리가 담긴 조그만 상자가 들려 있었다. 『창가의 토토, p.100』

5. 결론

본 논문은 일한 번역문에 나타나는 일본어 번역투 유형을 어휘와 문체로 이분화하고 각각의 하위분류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일한 번역문 속 일본어 번역투 문제해결을 위한 극복 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고찰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일본어 번역투의 구체적인 극복 방안은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가독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좋은 일한 번역물 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일본어 번역투로 훼손된 한국어 어휘와 문체의 정상화에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 고찰을 통해 일본문학과 일본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과 한국문화, 한국의 번역문화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일한 번역 소설 세 작품과 일한 번역 수필 세 작품을 대상으로 고찰한 연구로 작품 수와 용례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일본어 번역투 문제를 소설과 수필 장르별로 그 양상과 특징을 고찰·규명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 해결 연구 등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参考文献>

- 김광해(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5-2 국립국어원 pp. 3-26
- 김문오·홍사만(2003)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원 p.330
- 김한식(2012) 『일한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문장』 『새국어생활』22-1 국립국어원 pp. 81-98
- 나카노 쿠루미(2020) 『일한 수필번역의 번역투에 관한 연구 : 사쿠라 모모코의 ‘あのころ’를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손재현(2001) 『借用接尾辭』的』に関する計量的考察』 『번역학연구』2-2 한국번역학회 pp.129-144
- 안증환(2001) 『능동구조의 언어문화와 수동구조의 언어문화』 『日本文化學報』10 韓國日本文化學會 pp.87-105
- 영미문학연구회(2005)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pp.21-22
- 오경순(2010) 『번역투의 유혹』 이학사
- _____ 외(2012)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어』 21세기북스
- _____ (2007) 『일·한 번역의 번역투 고찰—텍스트 번역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究』61-1 韓國日語日文學會 pp.235-258
- _____ (2008) 『일한 번역의 번역투 고찰—일본식 후치사를 중심으로—』 『번역과 일본문학』현대일본총서 도서출판 문 pp.203-231
- _____ (2010a) 『日韓 翻譯 戰略: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이문화 용어와 외래어 표기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27 韓國日本近代學會 pp.95-114
- _____ (2010b) 『일한 번역의 번역투 고찰—수동표현 번역문을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29 韓國日本近代學會 pp.163-181
- _____ 외(2011) 『일본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53 한국언어학회 pp. 93-117
- _____ (2011a) 『사역표현의 일한 번역과 번역투』 『日本文化研究』38 동아시아일본학회 pp.311-329
- _____ (2011b) 『일한 번역과 번역투』 『인간과 문화연구』19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pp.87-113
- _____ 외(2013) 『일본어는 어떻게 우리말을 잠식하였나?—일본어(번역)투의 과잉양상과 극복 방안—』 『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동아시아연구총서1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편 박문사 pp.393-427
- _____ (2014a) 『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피동표현과 사동표현 번역문을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43 韓國日本近代學會 pp.119-138
- _____ (2014b) 『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적(的)’의 번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 『日本學報』99 韓國日本學會 pp.75-92

- _____(2014c) 『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문화변용』 『日本近代學研究』46 韓國日本近代學會 pp.99-116
- _____(2015) 『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번역전략』 『통합인문학연구』7-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pp.55-90
- _____(2017a)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의 검증과 조망-오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56 韓國日本近代學會 pp.95-112
- _____(2017b) 『번역, 문학과 문화를 말하다-명작의 한·일·영 번역을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54 韓國日本語學 pp.107-123
- _____(2019) 『미디어 속 번역문체에 대하여-말과 글은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과 글』(2019년 봄 제158호) 한국어문기자협회 pp.21-28
- _____(2022) 『번역과 언어간섭 ‘가짜동족어(false friends)’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75(2022.2) 韓國日本近代學會 pp.25-50
- 이하자(2005) 『한국 신문기사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고찰』 『日本語教育』31 韓國日本語教育學會 pp.99-116
- 정수현(2002) 『현대 한국어 속의 일본어투 표현 고찰』 『日本學』21 東國大學校出版部 pp.45-62

<用例出典>

- 稻垣えみ子(2016) 『魂の退社』 東洋經濟新報社
- 奥田英朗(2008) 『空中ブランコ』 文藝春秋
- 姜尙中(2008) 『悩む力』 集英社
- 黒柳徹子(1984)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 村上春樹(2007) 『走ることにし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 文春文庫
- 村田沙耶香(2016) 『コンビニ人間』 文藝春秋
- 김난주 역(2000) 『창가의 토토』 프로메테우스
- 김미형 역(2017) 『퇴사하겠습니다』 엘리
- 김석희 역(2016) 『편의점 인간』 살림
- 이경덕 역(2009) 『고민하는 힘』 사계절 출판사
- 이영미 역(2005) 『공중그네』 은행나무
- 임홍빈 역(2009)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문학사상

접수일: 2024년 7월 11일

심사완료: 2024년 7월 26일

게재결정: 2024년 7월 27일

<Abstract>

A Comprehensive Study on Japanese Translationese and Strategies for Overcoming It

—Focusing on Japanese-to-Korean Translated Works of the 2000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types of Japanese translationese appearing in Japanese-to-Korean translations to analyze its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imarily aimed to propose solutions for overcoming the problems related to Japanese translationese in Japanese-to-Korean translations. The study's key findings and contributions are as follows:

1. The specific strategies for overcoming Japanese translationese proposed i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Japanese-to-Korean translations that meet readers' readability standards.
2. This study's results are expected to aid in normalizing Korean vocabulary and style, which Japanese translationese has distorted.
3. This study supports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Japanese literature and culture, and suggests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including translation cultu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ree Japanese-to-Korean translated novels and three Japanese-to-Korean translated essays from the 2000s. The study acknowledges limitations in the number of works and examples examined as well as in failing to identify and analyze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translationese problems separately for the novels and essay genres. Addressing these limitations remains a task for future research.